

吐含山 佛國寺의 空間認識特性에 關한 研究

허 준* · 김용기** · 홍광표***

* 우석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조경학과

** 성균관대학교 농과대학 조경학과

*** 동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조경학과

A Study on the Cognitive Factors of the Space in Pulkusa Temple at Tohamsan Mountain

Huh, Joon * · Kim, Yong-Ki** · Hong, Kwang-Pyo***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Woosuk Univ.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

ABSTRACT

To analyze in detail the cognitive factors in the sense of place in Korea traditional temples and their occurrence and significance, the questioning was conducted about the actual condition of visitors' using of and preference for Pulkusa Temple as an object of the investigation. The result from the analysis of the visitors' sense of respective factors forming the image of the temple is as follows:

1. While the male visitors for outnumbered the female, the female visitors are more satisfied with the senses of the temple than male. The younger visitors are larger in number while the older visitors have the more satisfaction. It took the largest number of the visitors at least three hours to come to the temple. The most numerous are the visitors who came to the temple by their own cars. The visitors are coming not only from the Kyunsang Provinces but from all over the country and they made a family trip to the temple.

2. 86 people among the questionees replied that the Tower stands best for Pulkusa Temple. The second largest number of the questionees replied that the main sanctuary does. The third largest number of the questionees replied that the natural environment does.

3. The visitors who came to the temple for sightseeing showed their highest preferences for each of the main sanctuary and the tower. The Buddhist visitors also showed the same tendency as non-

Buddhist ones in their preference.

4. On the whole, the space factors such as buildings and scenes which represent Pulkussa Temple are the towers such as Sukka Tower and Tabo Tower, the sanctuary buildings such as main sanctuary, the natural scenery such as Toham Mountain, and the steps such as Chungwun-Kyo and Paekwun-Kyo.

5. The potential factors to explai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cenery in Pulkussa Temple are revealed to be a factor of overall valuation, of orderliness, of individuality and of comfortableness, through hypothetical. T.V was 54.1% and the orderliness of Sukkatap was highly evaluated in factor score analysis.

Key Words: Cognitive factors, Pulkussa, preference

I. 序論

장소는 인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짐으로써 그 경험이나 인식의 주체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하나의 선택된 공간으로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상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Noberg-Schulz, 1979). 따라서 장소는 인간이 개입함으로써 형성되는 실존적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인식의 주체에 따라 그것의 이미지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정 공간을 접하게 될 때 자신이 가진 과거의 경험을 동원하여 나름대로 그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설정하게 된다. 이때 그 공간의 이미지가 그것을 접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될 수 있다면 그 공간은 비교적 분명한 장소성을 갖추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장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치 않다는 말이 될 것이다. 가장 총체적이고 중요한 경험은 어떤 독특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존재감으로 이는 개인이 실제로 한 장소에 위치하여 물리적 구성을 봄으로써 느끼게 되는 내부성이며 결국 바로 그 장소의 정체성과 연결된다(Relph, 1976). 장소에 대한 강렬한 경험의 일부는 이것이 신성한 곳이라는 인상에서 비롯된다. 인상적인 건축물에 대한 경험은 모든 물리적·정신적 지각을 예민하게 한다. 그러나 느낌이란 이것의 광대성 및 다양성 때문에 그 구조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경험속에서 우리는 생물학적 및 문

화적, 총체적 및 개별적, 의식적 및 무의식적, 분석적 및 감성적 그리고 정신적 및 물질적인 것들에 기인한 어떤 조화를 발견한다(김재식, 199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인조공간의 어느 요인으로부터 장소를 인식하게 되는가를 분석해서 그 요인을 보다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 줄 필요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소란 결국 공간과 인간의 상호관련성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고, 그 결과 사람들이 장소를 구축하는데 긴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의 선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국내의 조영공간 가운데에서도 전통사찰은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그리고 널리 인식되어 온 가장 한국적인 인조공간이며, 그 사찰의 조영원리가 여타 조영공간의 설계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 사찰의 경관이 인도나 중국 혹은 일본의 그것과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사찰에 대한 장소성 인식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곤 한다. 이렇게 볼 때 조영공간의 형식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것과 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공간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조영공간에 대해서 인식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요인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통사찰의 장소성 인식요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 공간분석의 결과는 사찰의 경관변화특성을 파

악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찰에 영향을 주었거나 사찰로 부터 영향을 받은 다른 조영공간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과 그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경관에 대한 느낌, 감정, 이미지 등을 연구주제로 하는 심리학적 경관분석 분야에서는 이미 개인적인 경험, 기대, 해석 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신비함, 친근감, 이미지 및 명료성과 식별성 등이 경관인식에 깊이 관여되고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Daniel & Vining, 1983; Zube, 1973).

한편 전통 과학적 경관분석방법의 회의에서 비롯되어 장소 및 공간인식 그리고 장소성에 관련된 체험적 차원의 연구로 인정받고 있는 현상학적 측면의 기존 연구는 지각대상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을 관심사로 하여 경관체계의 역사, 의미, 느낌 등 여러 지각특성 요소의 융합에 의한 경관의 고유특성을 밝히고자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장소 및 공간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현상학적 경관분석을 통해 장소성 등의 실존적 인식을 이해하며 차후 유사한 공간환경설계를 정립시키기 위한 뚜렷한 방법론은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임승빈, 1991).

특히 불국사와 같이 인지도와 지명도 면에서 우월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명승지의 성격이 뚜렷한 공간 일 경우 현상학적 경관분석의 체험적 정성적 특성파악으로는 실제 이용자 전반의 공간인식에 대한 정량화와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불국사를 대상으로 장소의 정체성 개념을 심리적 차원에서 조명하고자 이용특성에 따른 공간인식요인 파악하며 그 요인의 형성배경 및 의미를 보다 정량적으로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II. 研究方法

1. 研究對象地

佛國寺는 신라 景德王 10年(752)에 大相이었던 金大城에 의해서 창건된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사찰

이다. 불국사가 창건된 시점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수하고 난 이후 약 80여년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써, 이 시기는 외래문화를 우리나라의 환경적 특성에 맞게끔 재해석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사찰의 조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불국사는 사천왕사를 기점으로 출현하는 탑·금당병립형 사찰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완성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형식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되는 바가 크다. 여기서 말하는 불국사의 새로운 형식적 특징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찰의 입지가 왕경의 외곽부 산록에 자리잡게 됨으로써 그 이전의 사찰들과 비교된다는 점, 쌍탑을 도입하고 그 쌍탑을 연결하는 횡축선과 중문 및 금당을 연결하는 종축선의 교차점에 중심점을 설정한 후 만다라도형의 원리를 원용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 성과 속의 공간구분을 석단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청운·백운교와 연화·칠보교를 도입하여 석단으로 형성된 이질적 성격의 공간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제 현상들로 인하여 불국사는 그 이전의 사찰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형식상의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독특한 형식적 특징이 출현하게 된 것은 그 시대에 경주라는 특정 장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장소성 해석에 대한 변화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성이 바탕이 되어 그 당시 사찰에서 나타나는 외래형식을 고유 형식화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현재의 불국사는 전 영역이 다시 세 부분의 소 영역으로 구획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석가삼존불을 모신 대웅전 일곽과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전 일곽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본체인 비로자나불을 모신 비로전 일곽과 더불어 관음전 일곽이다. 그런데 그 세 영역은 각각 회랑에 의해 구획되어지므로 결국 지금의 공간구성으로 볼 때 불국사에는 연화장 세계는 물론 석가의 영산불국, 아미타의 극락세계 등이 동시에 표출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불국사고금창기에 의하면 중심영역에 배치된 이러한 건물들 이외에도 그 위치가 분명하지 않은 지장전이 또한 회랑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밖에도 오백성중전, 천불전, 시왕전, 십육웅진전, 문수전 등 현재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전각의 이름이

무려 45종이나 나열되어 있어 가히 창건시의 불국사가 지녔던 규모를 짐작케 하고 있다.

2. 研究方法

불국사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성요소 인식의 파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설문을 통하여 불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과 이용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설문지상에서 불국사의 경관을 대표하는 인자로 생각되는 전각, 문, 루, 계단, 탑, 불구, 자연 및 기타 인자의 8개 요소에 대하여 응답자의 경관만족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1, 2, 3으로 표시케 한 후, 이를 다시 세부요인(전각의 경우 대웅전, 극락전,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평가 및 이에 대한 만족도를 리커트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동국대학교 재학생 1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1997년 10월 25일부터 1주 일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 각 120매씩 배부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98매의 설문결과를 자료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설계에서 이용자의 속성은 성별, 연령, 학력 및 경제수준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이용실태는 접근방법 및 소요시간, 이용목적, 이용빈도, 이용시간, 주 이용계절, 동반자 그리고 불교신도 여부 등을 빈도 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검정하였으며, 불국사 경관인식의 대표적 인자는 빈도와 평균값을 추출하여 평가하였다.

한편 불국사 경관의 대표적 인자에 대한 공간별 이미지구조의 분석은 우석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학생 163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16문항의 SD scale로 각 공간요인별 슬라이드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인자분석을 통해 이미지 구조를 밝혔다.

III. 結果 및 考察

1. 利用者 屬性分析

불국사를 찾은 이용자의 속성과 만족도를 Table 1에 종합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의 이용율은 60.1%

로서 여성보다 높았으나 공간 만족도에 있어서는 여성의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분산분석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은 20-30대가 전체의 78.8%로 젊은 층의 이용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분산분석상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연령이 높아 질수록 만족도에 있어 평균값은 더불어 높아지는 특이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Relph(1976)가 제시한 바와 같이 고연령일수록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 명승인 불국사에 대한 감정적 내부성은 물론 간접경험에 의한 간접적 내부성이 개인차를 보인 가운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그리고 대학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이 전체의 60.5%로 고학력자의 이용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Table 1. Attribute of Users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Satisfaction F	
				Percent to space	value
Sex	male	179	60.1	60.1	3.82 3.83*
	female	119	39.9	100.0	4.00
Age	10-19	7	2.3	2.3	3.71 1.75
	20-19	150	50.3	52.7	3.80
	30-39	84	28.2	80.9	3.94
	40-49	35	11.7	92.6	3.97
	50-59	11	3.7	96.3	4.27
	60 more	11	3.7	100.0	4.27
Education	primary	10	3.4	3.4	3.20 2.59**
	middle	9	3.1	6.5	3.78
	high	97	33.0	39.5	4.04
	univ.	178	60.5	100.0	3.80
Job	business	28	9.6	9.6	3.89 2.94**
	expert	64	21.8	31.4	3.95
	service	29	9.9	41.3	4.17
	student	63	21.5	62.8	3.60
	house keep	50	17.1	79.9	4.08
	no job	6	2.0	81.9	3.33
	officer	21	7.2	89.1	3.86
	others	32	12.6	100.0	3.81
Income	50 less	54	18.1	18.1	3.85 0.62
	50-100	89	29.8	47.6	3.97
	101-150	66	22.1	70.0	4.02
	151-200	42	14.1	84.1	3.78
	201-250	24	8.1	92.2	4.03
	251 more	23	7.8	100.0	3.95
Residence	seoul	44	14.7	14.7	3.84 1.62
	kyungbuk	49	16.4	31.1	3.71
	pusan	44	14.7	45.8	3.81
	kyungnam	52	17.4	63.2	4.00
	taegu	37	12.4	75.6	3.94
	taejon	10	3.3	78.9	4.03
	kyungki	17	5.7	84.6	3.60
	others	45	15.4	100.0	3.94
	Total	298	100.0	100.0	

Notes; *: Significant at 1% level, **: Significant at 5% level

고졸 집단이 타 학력군에 비해 다소 높은 만족을 보였다. 직업과 평균 월소득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전문기술직 및 학생의 이용이 다소 높았으며 월 평균소득도 100만원대가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직업별로는 상업서비스업 및 주부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고른 경향을 나타내어 이는 이용목적 분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중참여 관광을 위한 가장 보편적 명소로 인식되고 있음이 반영되었다.

한편, 거주권에 있어서는 불국사 인접지역인 경남 북권 뿐만 아니라 서울, 대전, 경기 및 기타 지역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불국사를 찾는 것으로 나타나 목적형 관광지의 특성을 보였으며 불국사의 관광 세력권이 전국적임을 알 수 있다.

2. 利用實態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북 이외의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약 43% 정도가 3시간 이상의 소요시간을 나타냈으며 주 이용교통편은 자가용인 것으로 나타났고 22%정도는 버스를 이용하여 불국사를 찾았음을 알 수 있다.

이용목적으로는 관광이 52%정도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동반자 유형에서 가족동반이 122명인 것으로 보아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주가 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찰 참배는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가을철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불국사가 참배를 위한 신앙형 대상이라고 하기보다는 탐승을 위한 관광지로 변모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용목적별로는 사찰참배와 사진촬영을 위하여 불국사를 찾은 이용객의 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며 이용빈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빈번히 불국사를 접하는 이용자 및 처음 온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신자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비신자가 65.5%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불국사가 사찰의 기능보다는 관광지화 되어 간다는 경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용빈도에서도 몇 년에 한번정도 이용하며, 현대의 관광추세와 마찬가지로 계절에 무관하게 불국사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은 점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한편, 전체 공간 만족도는 신자가 비신자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 피안세계의

Table 2. Users Activities

Value Label	Frequency	Valid Percent	Cum Percent	spatial satisfaction	F value
Access time	30 min. less 30 - 1hr 1-2 hr 2-3 hr 3 hr. more	11 51 73 33 130	3.7 17.3 24.7 11.2 43.1	3.7 21.0 45.8 56.9 100.0	3.99 3.75 3.89 4.00 3.90
Means of access	on foot by bicycle my car bus rail+bus others	2 1 195 66 29 5	.7 .3 65.4 22.1 9.7 1.7	.7 1.0 66.4 88.6 98.3 100.0	4.00 3.00 3.89 3.83 3.86 4.80
Purpose	worship tour. culture photo. travel others	12 155 44 7 66 14	4.0 52.0 14.8 2.3 22.1 4.7	4.0 56.0 70.8 73.2 95.3 100.0	4.17 3.83 3.95 4.43 3.88 3.93
Frequency	everyday 1/2-3day 1/1 week 1-2/1 month 1/3month 12/1 year 1/23 year first visit	1 2 2 19 6 51 184 33	.3 .7 .7 6.4 2.0 17.2 61.5 11.1	.3 1.0 1.7 8.1 10.1 27.4 88.9 100.0	4.00 4.50 4.50 4.40 3.83 3.96 3.82 4.03
Stay	1 hr less 12 hr 23 hr 45 hr all day more a day	75 174 29 11 2 2	25.6 59.4 9.9 3.8 .7 .7	25.6 85.0 94.9 98.6 99.3 100.0	3.89 3.83 3.90 4.18 4.00 4.50
Season	spring summer fall winter all season	26 68 25 9 170	8.9 23.4 8.6 3.1 56.0	8.9 32.3 40.9 44.0 100.0	3.92 3.93 4.00 3.33 3.88
Accompany	alone lover friend family believers group others	11 65 70 122 3 12 15	3.7 21.9 23.6 41.1 1.0 4.0 4.7	3.7 25.6 49.2 90.2 91.2 95.3 100.0	3.91 3.89 3.80 3.98 4.00 3.50 3.00
Belief	believer non	103 195	34.5 65.5	34.1 100.0	3.99 3.89
Total		298		100.0	

이상을 차안세계의 현실 속에 구현시키려 했던 불국의 꿈이(최정호, 1997) 장소애착과 존재적 내부성이라는 경험으로 신도에게 인식되고 있음으로 풀이된다. 동반자 유형별로는 단체관광객이 가장 낮은 만족을 표시했고 이용시간대에 있어서는 적은 인원수이긴 하지만 이용시간이 높아질수록 만족감도 증대되는 경

Table 3. Rank of Preference

전체순위					세부 순위						
		1위			2위			3위			
		요소	빈도	요소	빈도	요소	빈도	요소	빈도	만족도	
1위	탑	86	다보탑	47	4.47	석가탑	49	4.31	석등	82	3.53
	전각	62	석가탑	36	4.57	다보탑	35	4.31	관음전	21	3.26
			대웅전	54	4.48	무설전	21	3.48	극락전	17	3.24
	자연	50	산	20	4.90	관음전	14	3.64	비로전	10	3.10
2위	계단	21	청운백운교	20	4.45	나무	17	3.24	나무	24	3.57
	전각	59	대웅전	49	4.55	산	14	4.42	바위	12	3.54
	탑	58	석가탑	31	4.63	극락전	26	4.42	관음전	25	3.80
	자연	45	다보탑	25	4.64	관음전	13	3.67	극락전	16	3.63
3위	계단	30	산	13	4.55	다보탑	31	4.43	석등	55	3.56
	문	17	나무	25	4.68	석가탑	26	4.42	바위	21	3.30
	불구	11	청운백운교	28	4.50	산	15	3.73	개울	10	3.10
	자하문		자하문	10	4.40	개울	12	4.00	산	10	3.10
3위	자연	57	나무	25	4.80	나무	18	4.06	개울	21	3.43
			산	19	4.50	나무	18	4.44	바위	18	3.56
	전각	40	개울	10	4.42	개울	10	4.01	산	10	3.30
			대웅전	36	4.33	극락전	16	3.50	비로전	12	3.92
3위	탑	38	석가탑	16	4.51	관음전	16	3.87	석등	29	3.45
			다보탑	15	4.73	석가탑	18	4.20			
	계단	29	청운백운교	20	4.52	다보탑	16	3.63			
	불구	19	불상	13	4.54	연화교	19	4.00			
3위	문	18									
	루	12									
	기타	13									

향을 보였다. 이는 공간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 형성이 낮은 단체관광의 특성이며 장소에 대한 애착심이 곧 경관선호에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공간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각 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3. 공간구성요인 분석

Table 3은 전각, 문, 루, 계단, 탑, 불구, 자연 및 기타 등 8개 요인에 관하여 불국사를 대표한다고 생각되거나 가장 인상깊었던 것에 관하여 1, 2, 3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그 세부요인 각각에 관하여 다시 1, 2, 3의 순위를 부과한 후 그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한 결과 중 10인 이상의 응답만을 요약한 것이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순위 중 탑이 불국사

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전각, 자연의 순 이었다. 2순위 역시 탑 58명과 전각59명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3순위에서는 자연이 57인으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세부 1위에 다보탑 47명, 석가탑 36명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4.74, 4.57로 매우 높은 수준의 만족을 나타냈다. 전각에서는 대웅전에 대한 만족도가 4.48로 가장 높았으며 토함산에 대한 만족은 4.90으로 자연경관에 대한 극히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만족 2, 3위에는 전각에서 극락전, 무설전, 관음전 등이 나타났고 석가·다보탑은 역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석등에 관한 만족도가 3순위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탑의 세부요인이 석가, 다보, 석등의 3개인 것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이외에 나무, 바위 등의 자연적 요인들도 세부요인으로 나타났다.

전체순위 2위의 세부요인을 보아도 석가, 다보탑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으며 대웅전에 대한 만족도가 4.55로 높게 나타났고 청운·백운교에 대한 만족도가 4.5로 매우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산 및 나무, 개울 등에 대한 인지와 만족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 3 순위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조사된 불국사 전체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3.78인 바 1, 2순위의 세부공간요인에 대한 만족은 대부분이 이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불국사를 구성하는 세부요소 중 석재로 이루 어진 공간 및 조형물은 통일신라 당시의 석조문화임에 비해 전각 등 대부분의 비석조물은 전란후 복원된 연유에서 기인된다고 판단되어 공간구성요소 인식에 미치는 상징적 의미는 경관선호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는 불국사 경관의 대표적 인자의 전체 우선 순위 중 1위만을 이용실태별로 요약해 놓은 것이다. 관광목적으로 불국사를 찾은 이용객들은 전각과

탑에 있어 비슷한 정도의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자연이 불국사를 대표한다 응답하였으나 여행이 목적인 내방객은 탑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계절별로 보아서는 사계절의 절기별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공간선호 분포는 고르게 나타났지만 계절에 무관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불교 신자의 경우 전각과 탑의 선호가 높으면서 양자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비신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탑의 선택이 크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보아 불국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경관요인은 석가·다보탑 등 탑과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 토함산을 포함하는 자연경관, 청운·백운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각각 요인들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할 것이며 문화 관광적 자원으로서 또한 경관요소로서 조경적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이미지 構造 分析

불국사의 경관요인 중 이용자집단에 의하여 불국사를 대표한다고 생각되거나 공간구성요인으로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요소를 추출한 후 상위에 속한 전경, 석가탑, 다보탑, 대웅전, 청운·백운교를 사진 촬영하여 슬라이드로 작성하였다. 동국대학교 및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에 의해 163명을 선발한 후 16 문항의 SD scale을 사용하여 공간이미지를 테스트 하였다.

요인별 종합만족도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청운·백운교가 5.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탑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보탑이 석가탑보다 만족도가 비교적 높아 일반인들의 평가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각각의 요인별로 공간 이미지를 평가해 보면 인상적인 측면에서 청운·백운교가 1.99로 가장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품위 및 아름다움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매우 품위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보탑의 복잡성, 석가탑의 단순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질서면에서도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석가탑은 1.61로 가장 높은 평가를 보여 단순미의 극치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다. 또한 모든 요인들

Table 4. Cognition by Actual Condition

		전각	문	루	계단	탑	불구	자연	(freq.)
Purpose	worship	4			1	5	4		
	tour	39	2	1	10	42		26	
	culture	7	3	1	4	13			4
	photo				1	2			3
	travel	10	1		3	20	2	12	
	others	2			2	5			4
Frequency	everyday					1			
	1/2-3day					2			
	1/1week	1					1		
	1-2/1 month	3			2	10		1	
	1/3month	1	1					1	
	1-2/1 year	11	1	1	3	9		7	
	1/2-3 year	38	3	1	11	61	2	31	
	first visit	8	1		3	4			7
Stay	1 hr less	19	3		6	18	1	14	
	1-2 hr	34	2	1	10	60		26	
	2-3 hr	4	1	1	4	4	1	6	
	4-5 hr	3			1	3			
	all day	1				1			
	more day							1	
Season	spring	8			1	8		5	
	summer	17	1		3	18	1	11	
	fall	8				5		4	
	winter	1	1		2	3			
	all season	28	4	2	14	50	1	30	
Belief	believer	29	1		9	28		15	
	non	33	5	2	12	57	2	34	
Total		62	6	2	21	86	2	49	

Table 5. Assesment of Image

Var.	전경		다보탑		석가탑		대웅전		청운·백운교	
	M	S.D.	M	S.D.	M	S.D.	M	S.D.	M	S.D.
X1 (인상적 - 비인상적)	2.76	1.38	2.18	1.24	2.48	1.24	3.79	1.46	1.99	1.23
X2 (정적 - 동적)	2.59	1.67	3.44	1.84	2.89	1.83	2.90	1.40	4.13	1.74
X8 (품위유 - 품위무)	2.28	1.20	2.21	1.25	2.49	1.29	2.87	1.38	2.33	1.06
X4 (단순한 - 복잡한)	4.40	1.58	5.06	1.55	2.06	1.14	2.88	1.27	4.61	1.56
X5 (미 - 추)	2.56	1.09	2.21	1.16	2.70	1.08	3.20	1.00	2.13	1.07
X6 (독특 - 평범)	3.60	1.65	2.13	1.20	4.12	1.75	4.42	1.50	2.20	1.17
X7 (쾌활 - 우울)	4.02	1.34	3.15	1.32	4.18	1.60	4.23	1.34	2.66	1.18
X8 (질서 - 무질서)	2.63	1.44	2.35	1.24	1.61	.73	2.25	1.00	2.67	1.22
X9 (신비 - 비신비)	3.63	1.32	2.86	1.35	3.59	1.56	4.14	1.45	2.77	1.19
X10 (친숙 - 낯선)	2.51	1.34	2.54	1.42	2.39	1.31	2.61	1.17	3.13	1.50
X11 (큰 - 작은)	3.43	1.53	3.48	1.33	3.43	1.30	3.23	1.56	3.11	1.40
X12 (먼 - 가까운)	3.34	1.48	4.36	1.41	4.03	1.36	3.56	1.64	4.12	1.29
X13 (인공적 - 자연적)	3.90	1.63	2.63	1.56	3.44	1.70	3.32	1.39	3.00	1.56
X14 (편안 - 불편)	2.99	1.48	3.20	1.33	2.41	1.23	3.12	1.36	2.92	1.09
X15 (흥미 - 지루)	3.62	1.39	2.86	1.29	3.70	1.45	4.27	1.43	2.40	1.17
X16 (섬세 - 거친)	2.70	1.30	1.90	1.10	3.17	1.49	3.25	1.30	2.39	1.41
SAT (종합만족)	5.08	1.16	5.57	1.18	5.30	1.17	4.17	1.23	5.72	1.22

Notes ; M=mean, S.D.=standard deviation

이 친숙감을 보여주며 편안하고 섬세한 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다보탑의 경우 섬세함에서 1.90으로 화려한 조영미를 표출한다 하겠다.

5. 因子分析

16개의 SD scale 측정치들에 대하여 모든 장소요인들을 대상으로 인자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6)

인자분석은 주성분분석법, VARIMAX법을 사용하여 Eigenvalue 1 이상인 4개의 인자를 추출하였다. 이들 인자군의 전체변량은 54.1%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45.9%는 오차변량과 특수변량이라 하겠다.

인자 1에는 '아름다운-추한', '독특한-독특하지 않은', '인상적인-비인상적인', '신비한-신비하지 않은', '품위있는-품위없는' 등의 어의적 변량이 0.7242 - 0.6196으로써 비교적 높은 적재치를 보이며 주성분을 이루었고 Eigenvalue 4.40, T.V. 50.8%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품위, 아름다움, 신비함, 질서, 독특함 등의 변인들은 조망경관이 갖는 분위기의 양부와 관련된 '종합평가성 차원'의 인자들로 볼 수 있다.

인자 2에는 '질서있는-질서없는', '단순한-복잡한' 등의 변인들이 0.5647 - 0.5511의 적재치를

Table 6. Rotated Factor Matrix

	F 1	F 2	F 3	F 4	h^2
X5	.72424	.14908	.25140	-.16779	.4473
X6	.70293	-.04480	.44407	.11240	.4942
X1	.70115	.17588	.23757	-.16038	.4664
X15	.69727	.00938	.49879	.03110	.5313
X9	.68497	.09022	.33994	-.02836	.4724
X3	.61965	.29098	-.05130	-.28709	.4053
X16	.59679	-.04402	.16672	.04200	.3274
X11	.26416	.00525	.04084	-.18767	.1100
X8	.15975	.56478	-.08758	-.21779	.2116
X4	-.46585	.55111	-.23212	-.17890	.3405
X7	.45701	-.10084	.58598	.05240	.3311
X2	-.06549	.20116	-.58062	-.22413	.2100
X12	-.05121	-.03936	-.10447	-.02026	.0343
X14	.22718	.20950	-.07507	-.66619	.2194
X10	.06497	.21725	-.09610	-.45556	.1474
X13	.12238	.08625	.18401	.23226	.0690
E.V.	4.4055	2.0332	1.1355	1.0808	
C.V.	27.5	12.7	7.1	6.8	54.1
T.V.	50.8	23.5	13.1	12.6	100.0

보이며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Eigenvalue 2.03, T.V. 23.5를 나타냈다. 이들 변인들은 공간에 대한 질서 등을 대변하며 '정연성차원'으로 명명될 수 있다.

'쾌활한-우울한', '정적인-동적인' 등의 변인이

0.5859-0.5806 적재치를 보이며 인자 3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들 변인들은 공간의 개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며 '개성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제 4인자로는 '편안한-불편한', '친숙한-낯선', '인공적-자연적'의 변인이 Eigenvalue 1.0808로 뮤였으며 이는 공간의 안락감 특성을 설명하는 '안락감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불국사 사찰공간의 공간구조특성을 설명하는 잠재적인 공통인자는 가설적이기는 하나 '종합평가성차원', '정연성차원', '개성차원', '안락감 차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국사 공간인식 이미지는 불국사 경관에 대한 친근감을 바탕으로 간접적 내부성을 견지한 채 이원적 공간구조가 보여주는 복잡성과 신비감이라는 심리적 변수가 공간인식 및 경관선호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Table 7. Factor Score

Var.	전 경		다 보 탑		석 가 탑		대 웅 전		청운백운교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F1	.05	.77	-.53	.82	.30	.83	.71	.85	-.52	.77
F2	.29	.83	.24	.64	-.70	.61	-.07	.59	.25	.66
F3	.37	.67	-.31	.73	.23	.81	.38	.53	-.66	.57
F4	.09	.79	-.27	.77	.39	.73	.00	.68	-.21	.66

인자점수의 분석결과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가탑의 정연성 차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보탑에서는 석가탑의 경우와 반대로 정연성 차원만 낮고 다른 변인들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아 두 탑의 이미지 구조가 극명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운·백운교의 경우도 다보탑과 거의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개성차원에서 다른 공간구성요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불국사의 조형원리가 석가탑과 다보탑의 조형요소를 모티브로 하여 사찰 곳곳의 전반적인 조형이 반복·확대됨(정기호, 199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석가탑과 다보탑이 기존의 쌍탑 개념에 대한 조형의 예외성과 공간구성요소의 대비적 효과가 공간인식의 내적 구조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VI. 摘要 및 結論

한국 전통사찰의 공간구성 요인을 분석하고 그 요인의 형성배경 및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불국사를 대상공간으로 하여 실제 이용자의 이용실태 및 공간 선호요인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각 경관구성 요인들에 대한 별도의 이미지 구조를 파악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불국사를 찾은 탑방객은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으나 공간만족도에 있어서는 여성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고 연령은 젊은 층의 이용이 두드러졌으며 연령이 높아질 수록 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도착 소요시간으로는 3시간 이상 걸린 이용객이 가장 많았으며 주 이용교통편은 자가용 이용율이 높았고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참배와 사진촬영을 위하여 불국사를 찾은 이용객들의 공간만족도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고 1개월에 1-2번 정도 사찰을 찾는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전 내방객 중 비신자가 약 65%인 것과 이용자 거주권에 있어서 경남북권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불국사를 찾아오는 것으로 보아 불국사가 점차 관광지화 되어간다는 경향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다.

2. 불국사를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공간요소는 1순위에서 탑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전각, 자연의 순이었다. 1순위 개별 공간 요소에서는 다보탑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지만 석가탑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2순위 역시 탑 58명과 전각 59명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3순위에서는 자연이 57인으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3. 이용 실태별로 보면 관광목적으로 불국사를 찾은 이용객들은 전각과 탑에 있어 비슷한 정도의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자연이 불국사를 대표한다 응답하였으나 여행이 목적인 내방객은 탑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계절에 무관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탑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경향을 발

견할 수 있었다. 또한 불교 신자의 경우 전각과 탑의 선호가 높으면서 양자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비신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탑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4. 전체적으로 보아 불국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 요인은 석가·다보탑 등 탑과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 및 템파산을 포함하는 자연경관, 청운·백운교 등 계단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따라서 불국사의 장소성을 표출해내는 이들 각각의 석조물 및 건축공간 또는 자연적 요인들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 할 것이다.

5. 슬라이드 테스트에 의한 요인별 종합 만족도에 있어서는 청운·백운교가 5.72로 가장 높은 평가치를 보였으며 탑의 경우 다보탑이 석가탑보다 만족도가 비교적 높아 일반인들의 평가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6. 불국사 사찰경관의 경관구조특성을 설명하는 잠재적인 공통인자는 가설적이기는 하나 ‘종합평가 성차원’, ‘정연성차원’, ‘개성차원’, ‘안락감차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인자군의 전체변량은 54.1%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인자점수의 분석결과는 석가탑의 정연성 차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용문헌

1. 김재식(1997) 조계산 선암사의 택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 김희영(1984) 상징으로 본 한국불교사찰의 경관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안영배(1976) 한국건축 외부공간의 유형과 구성기법분류 및 표기법. 대한건축학회지. 20(73).
4. 이규목(1988) 도시와 상징. 서울, 일지사.
5. 임승빈(1991) 경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6. 정기호(1991) 경관에 개제된 내용과 형식의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19(2): 23-31.
7. _____(1992) 불국사의 배치 및 세부형식 검토. 사찰조경연구. 창간호, 17-32.
8. 최정호(1997) 우리문화유산기행. 조선일보. 1997년 2월 4일.
9. 홍광표(1991) 신라사찰의 공간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Daniel, T. C., J. Vining(1983)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assessment of landscape quality. In I. Altamn & J. F. Wohlwill(eds.) Behavior and the Natural Environment. N. Y. Plenum Press: 39-84.
11. Lee, Kyu-Mok(1983) A Study on the Sense of Place in York. J.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1(1).
12. Noberg-Schulz, C.(1965) Intentions in Architecture. Mass.. The MIT Press.
13. _____(1971)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N. Y.. Praeger.
14. _____(1979) Genius Loci. Academy Editions London.
15.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td.
16. Tuan, Yi Fu(1979) Space and Place, Minn.. Univ. of Minnesota Press.
17. Zube, E. H.(1973) Rating everyday rural landscape of the northwestern U.S., Landscape Architecture(July): 370-375.